지니언스 (263860)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더 이상 늦을 수 없는 보안투자

NOT RATED (M)

목표주가	-원 (M)
직전 목표주가	-원
현재주가 (11/12)	31,35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2,846억원
총발행주식수	9,079,60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88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739,855주
52주 고/저	31,350원 / 11,510원
외인지분율	19.69%
배당수익률	1.61%
주요주주	이동범 외 2 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41.2	103.8	50.0
상대	72.2	151.4	95.2
절대 (달러환산)	41.7	116.9	65.2

3Q26 실적 Review

3Q26 실적은 매출액 137.8억원, 영업이익 37.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2.2%, 253.0% 증가했다. 분기사상 최대 매출액이다. 3Q26누적으로는 매출액 387.0억원, 영업이익 80.9억원으로 각각 24.0%, 273.9% 개선되었다. 영업이익률은 20.9%로 3Q25누적 OPM(6.9%) 대비 14.0%P개선되었다. 매출액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NAC(Network Access Control)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중심의 대형 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방 · 병원 분야 신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NAC도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다. Insight E(EDR+백신)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EDR 신규 도입과 기존 고객의 단말 추가 확장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EDR 기반 MDR 서비스의 고객사 역시 확대되고 있다.

26년 사상최대 실적 전망 & 27년에도 이어질 성장세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4Q가 성수기이다. 동사의 경우 연간 매출액 중 4Q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21~25년) 40.4%이다. 금융권 해킹 사태를 비롯하여 다수의 산업군에서 지속적으로 해킹피해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4Q에 집중되는 B2G외 (금융)기업향 NAC, EDR 매출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 사상최대 분기실적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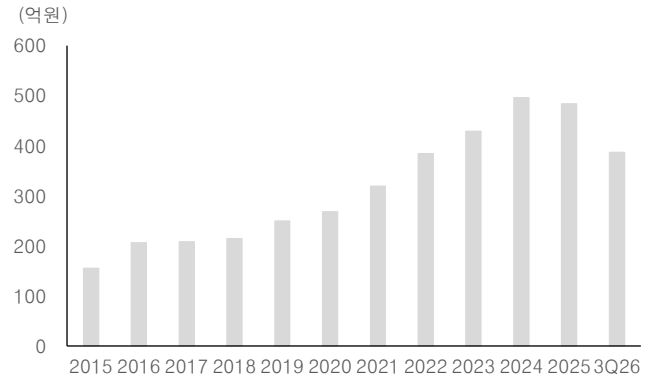
27년에도 실적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5년 통신사, 26년 금융권 해킹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7년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보안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연이은 금융사 등의 해킹사태로 인해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연 1회에서 연 2회소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취약점을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금융보안원에서 관련 방안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금융회사들은 27년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기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준에서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20일에 통과되었다.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국가정보원 주관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 대상이확대(26년 153개사→27년 868개사→28년 2,160개사)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385	429	496	484
영업이익	69	65	98	70
지배순이익	71	62	109	75
PER	12.2	17.8	9.4	21.5
PBR	1.7	2.0	1.7	2.5
EV/EBITDA	7.0	11.3	6.2	15.2
ROE	16.1	12.7	20.3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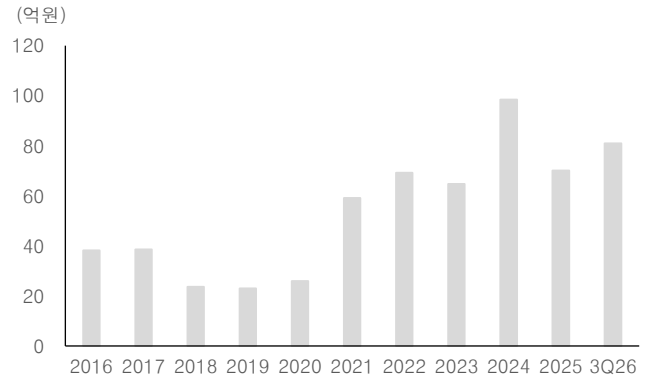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차트 1] 연도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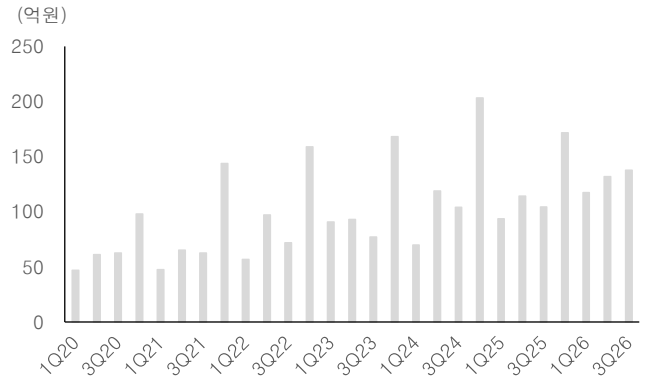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2]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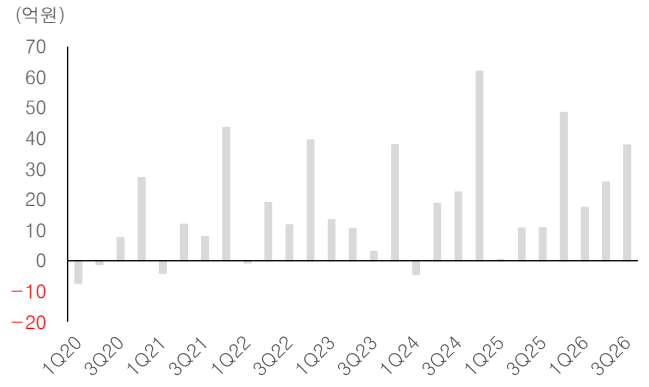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3]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4]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0/1 일, 신한은행에서 고객 2.5 만명의 대출 관련 정보 등이 유출 사고가 발생되었다.

연이은 금융권 해킹

지난 10 월 1 일, 신한은행에서 고객 2.5 만명의 대출 관련 정보 등이 유출사고가 발생되었다.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되었다. 모바일 홈페이지 내 대출 모집인들이 사용하는 기능을 악용해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I 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된다. 정보 유출 사실 인지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외부 IP 차단, 관련 서비스 중단, 보안 정책 신규 적용 등 필요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사에서 밝혔다.
10 월 2 일, KB 국민은행이 고객 정보 100 여건의 외부 침입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되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일반 고객이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과는 무관하며, 사고사실 인지직후 문제의 서버와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사이버 침해사고의 주된 원인은 상당수가 기본적 사이버 보안 수칙 미준수에 기인하며, 정보 유출사고시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받은 경우는 없고, 책임자·관리자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21.1 월~26.5 월 해킹 등으로 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사고는 총 247 건이었으나 징계처분은 9 건에 불과했으며, 기관장 징계는 부재했다.
사이버 보안 수칙 전수여부 등을 평가하는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의 결과가 정부업무평가내 반영되는 비중이 낮아 기관의 사이버 보안 향상 노력을 유인하는 동기가 부족, 중앙행장기관에서 전단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은 49 개중 11 개에 불과하다. 기술지원이 어려워 보안에 취약한 노후 SW 교체 역시 기관내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이버 보안 업무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사고시 책임 부담과 무사고 등 성과 증명의 어려움으로 기피되고 있다.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를 위해 ①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사이버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하며, ②명확한 징계조치를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위규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한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마련, 연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하고, ③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 정보 유출사고시 감점, 사고 신속조치 등 신규지표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보강, ④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을 공공부문 모든 기관으로 확대,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현 153 개 기관→27 년 868 개 기관→28 년 2,160 개 전체 기관으로 확장), ⑤사이버보안 인력을 보강(연내), 중장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 전담조직을 27 년내 설치할 예정이다.

제로 트러스트

위의 2 가지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와 더불어 직접적인 금융자산과 거래시스템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및 투자 수준이 높은 편이다. 금융권에서 연이은 해킹이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권뿐 아니라 일반기업들의 해킹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 가능하다. 둘째, 신한은행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AI 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본격적인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성을 인지, 사이버 보안대책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고려시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 강세, 보안기업들의 4 분기 성수기라는 계절성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B2G & B2B 사이버 보안기업들의 관심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업으로 지니언스(263860), 라온시큐어(042510)을 주목한다.

10/28 일, 청와대, 과기부 등에 해킹 사고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정부 대책

10월 28일, 청와대, 과기부 등에 해킹 사고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해킹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해킹 침해사고의 구체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부, 연말까지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이버 해킹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통신3사 등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70여곳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기존 금융권 해킹 사건과의 연관성과 범행 수법을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에 나선다. 해킹 경로와 피해 범위, 보안 관리 과정의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AI 보안위협 대응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해킹 대비 관리 대책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및 대응 체계 고도화, 망분리 이후 새로운 보안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4월 SK텔레콤 해킹사건 이후와 유사한 행보이다. 전년 대비 강화된 보안 정책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해킹사태, 은행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 가상자산으로 확대

해킹사태가 은행권에서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해킹되었다. 사내 모바일 업무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해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 비정상적으로 접근, 임직원 600~700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등)가 유출되었다. 대신증권은 10/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연계 서버에서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를 포착했다. 6만여건을 전수조사, 10월 26일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었다. 3만 8,490명의 증권종합계좌번호와 입출금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되었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일부 웹 시스템에서 외부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발견하였다. 외부 공격자가 정상적인 접근 권한없이 일부 업무용 시스템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발생되었다. 사고 인지 이후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를 통해 공격IP와 해외접속을 차단하고 취약 기능을 중단했다.

이전보고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한 이상징후 탐지, 다중인증, 모의해킹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7년 사이버 보안 성장 요소들

첫째,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에 따라 국가정보원 주관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 대상을 26년 153개 → 27년 868개 → 28년 2,160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과기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20일 통과, 기존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기준에서 내년부터 모든 상장법인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7년에는 사이버보안 기업들에게는 B2B 사업과 B2G 사업이 동반 성장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1/5 일, 금융위에서 AI 시대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해킹사고 특성 및 문제점

금융권에서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 AI 활용 공격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분야는 신뢰와 안정이 중요, 선제적 보안체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격 양상이 보안관리가 철저한 핵심 시스템이 아닌 인력 등의 한계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으며, AI 보편화로 인해 금융/공공/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격시도가 발생, 고위험 취약점 발견도 증가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시 소비자 2 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향, 우려되고 있다.

대응방안1. 점검

연내(11~12 월) 전 금융권의 외부접점 및 내부통제 체계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을 포함한 약 580 개사가 점검범위이다. 점검대상은 전 IT 자산의 외부접점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확인이다. 금융사가 자체점검을 실시, 점검내용 부실 및 중요한 취약점 등의 경우에는 금감원 · 금보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및 업무에 불필요한 외부연결을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보안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1Q27 내 마련할 방침이다.

대응방안2. 해킹 관제시스템 고도화

현재 AI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 IP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지만, 개별 금융사 파악정보는 미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해킹 시도 및 공격 의심정보를 전금융권에서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통합관제시스템(FIRST)를 통해 전금융권에 공유될 계획이다. 26.12 월에 시범운영하며, 27 년부터 전면운영하는 스케줄이며, 전자금융거래법이 미적용사 금융사 대상으로 26.11 월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응방안3. 금융권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내실화

금융회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 1 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받아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주기가 길고, 위무점검범위가 명시되지 않고, 보안조치 미이행시에도 시정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행 금융사부터 단계적으로 연 1 회에서 연 2 회로 강화된다. 중요한 보안취약점 장기간 방치시 금융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방안4. 중소형 금융회사 AI해킹대비 지원 강화

중소형 금융회사는 보안 전문이력 및 예산 등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보안원에서 중소금융사의 외부점검, 취약요인을 상시 탐색하고, 위험 우선순위 및 조치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연내 금융권들의 점수점검을 통해 27 년이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 27 년 보안기업들에게 B2B 매출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해킹 확대로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제로트러스트의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EDR, 다중인증, 모의해킹 관련 보안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니언스 (26386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319**	**385**	**429**	**496**	**484**
매출원가	124	158	171	186	174
매출총이익	196	227	258	310	310
판관비	136	157	193	211	239
영업이익	**59**	**69**	**65**	**98**	**70**
EBITDA	67	75	71	106	80
영업외손익	13	9	1	16	1
외환관련손익	1	0	0	0	0
이자손익	3	5	13	11	10
관계기업관련손익	-1	-4	-4	-1	-1
기타	11	7	-8	7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72	78	65	115	71
법인세비용	11	7	3	6	-4
계속사업순손익	62	71	62	109	75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2	71	62	109	75
지배지분순이익	**62**	**71**	**62**	**109**	**75**
포괄순이익	62	76	52	79	70
지배지분포괄이익	62	76	52	79	70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영업활동 현금흐름	**57**	**94**	**67**	**98**	**60**
당기순이익	62	71	62	109	75
감가상각비	5	5	5	6	8
외환손익	-1	0	0	0	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	4	4	1	1
자산부채의 증감	-22	5	-23	-28	-42
기타현금흐름	13	9	19	10	18
투자활동 현금흐름	**-43**	**-71**	**-38**	**-50**	**-111**
투자자산	-15	-2	-49	-10	-6
유형자산 증가 (CAPEX)	-2	-2	-2	-2	-3
유형자산 감소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27	-67	13	-38	-102
재무활동 현금흐름	**-3**	**-12**	**-41**	**-14**	**58**
단기차입금	0	0	0	-1	0
사채 및 장기차입금	0	0	0	7	83
자본	0	0	0	0	0
현금배당	0	-11	-13	-17	-22
기타현금흐름	-3	-2	-28	-2	-4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0	1	0
현금의 증감	**12**	**11**	**-12**	**35**	**7**
기초 현금	31	43	53	42	76
기말 현금	43	53	42	76	83
NOPLAT	**59**	**69**	**65**	**98**	**74**
FCF	**43**	**78**	**45**	**76**	**40**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유동자산	**336**	**475**	**463**	**512**	**617**
현금및현금성자산	43	53	42	76	8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6	83	89	106	113
재고자산	25	40	47	35	24
비유동자산	191	122	173	181	187
유형자산	54	53	54	54	58
관계기업등 지분관련자산	13	11	0	35	26
기타투자자산	82	23	77	32	36
자산총계	**527**	**597**	**636**	**693**	**804**
유동부채	106	108	125	96	99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3	83	95	72	77
단기차입금	0	0	0	0	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9	10	6	29	83
장기차입금	0	0	0	0	0
사채	0	0	0	0	79
부채총계	**116**	**118**	**131**	**125**	**182**
지배지분	411	479	505	568	622
자본금	47	47	47	47	47
자본잉여금	133	133	133	133	139
이익잉여금	296	362	414	466	490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411**	**479**	**505**	**568**	**622**
순차입금	**-200**	**-343**	**-312**	**-363**	**-393**
총차입금	1	1	2	2	80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EPS	654	757	661	1,165	826
BPS	4,660	5,428	5,855	6,583	7,171
EBITDAPS	70	80	75	113	89
SPS	338	407	454	530	533
DPS	120	150	200	250	300
PER	**12.2**	**12.2**	**17.8**	**9.4**	**21.5**
PBR	**1.7**	**1.7**	**2.0**	**1.7**	**2.5**
EV/EBITDA	**8.3**	**7.0**	**11.3**	**6.2**	**15.2**
PSR	**23.6**	**22.7**	**26.0**	**20.6**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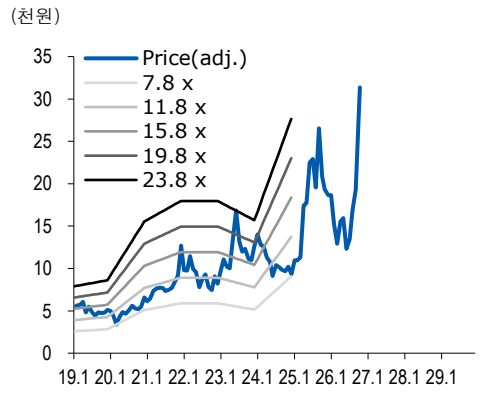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증가율 (%)	**19.0**	**20.5**	**11.5**	**15.7**	**-2.5**
영업이익 증가율 (%)	**127.9**	**17.2**	**-6.5**	**52.2**	**-28.8**
지배순이익 증가율 (%)	**80.3**	**15.8**	**-12.6**	**74.6**	**-31.3**
매출총이익률 (%)	61.3	58.9	60.1	62.5	64.0
영업이익률 (%)	**18.5**	**18.0**	**15.1**	**19.8**	**14.5**
지배순이익률 (%)	19.3	18.6	14.6	22.0	15.5
EBITDA 마진 (%)	20.9	19.6	16.6	21.4	16.6
ROIC	45.1	62.8	60.7	74.2	48.0
ROA	12.8	12.7	10.1	16.4	10.0
ROE	**16.2**	**16.1**	**12.7**	**20.3**	**12.6**
부채비율 (%)	28.2	24.6	26.0	22.0	29.2
순차입금/자기자본 (%)	-48.7	-71.6	-61.8	-63.9	-63.2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1,131.8	1,107.8	417.0	191.3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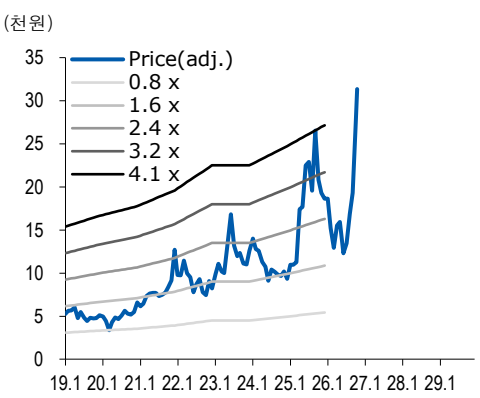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ROA의경우, 자본,자산 항목은 연초,연말 평균을 기준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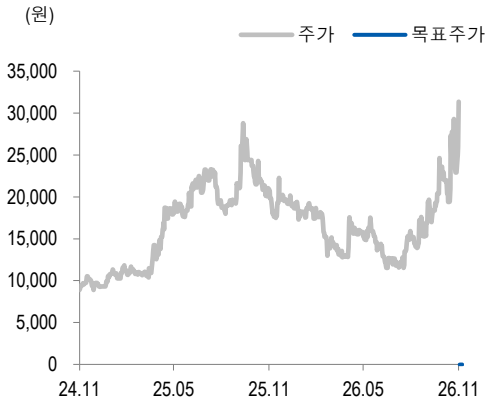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지니언스 (2638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11-13	Not Rated	-	1년		
2026-04-23	1년 경과 이후		1년		
2025-04-23	Not Rated	-	1년		
	담당자변경				
2025-03-28	1년 경과 이후		1년		
2024-03-28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6.9
Hold(중립)	3.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11-12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